

전주형 메타버스 정책 구현 박차

시, 메타버스 총괄자문관 위촉·메타버스 추진 TF 운영해 사업 발굴·교육 등 추진

전주시가 '한국형 뉴딜 2.0'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주형 메타버스'를 이끌 동력을 장착한다.

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메타버스총괄자문관을 위촉하고 메타버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는 메타버스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총괄자문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메타버스총괄자문관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중앙부처와도 소통이 가능한 전문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메타버스총괄자문관은 메타버스 정

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수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아 ▲전주시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전략 등 총괄 조정 ▲메타버스 국책사업 발굴 및 시정 적용 가능 분야 제안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등 제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연계 공조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형 메타버스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주시 공무원과 메타버스총괄자문관은 물론이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KX)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 TF는 ▲메타버스 추진 협력체 운영을 통한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 ▲디지털 포용정책 확대를 통한 시민 인식

전환 제고 ▲전 산업의 디지털 융합을 통한 디지털 뉴딜 일자리 창출 ▲정부·민간 투자 유치 등 사업규모 확대를 통한 '메타전주' 구현 ▲디지털 가상융합경제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전략으로 삼아 전주형 메타버스 정책 구현에 힘쓰는 방침이다.

시는 메타버스총괄자문관과 TF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 및 디지털트윈 분야 등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발굴하고 메타버스 주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기업과 학계와의 협력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김상균 강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대면으로 초청해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역

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메타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XR 온다(ONDA)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정책국장은 "최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역량 제고 및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도시 생태계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사람 중심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주형 메타버스 정책을 구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분야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소리 중심 영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

전주시, 케이사운드 스케이프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전주시가 지역 음향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소리를 중심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오는 31일까지 '2021 케이사운드 스케이프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케이사운드 스케이프는 효과음과 배경음 등 소리를 중심으로 기획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 구축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소리와 영상에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운드 관련 콘텐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자격은 1편 이상 영상물 연출·제작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소리가 중심이 되는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제작자에게 편당 1000만 원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영화,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등 형태와 장르, 소재, 길이 등의 제한은 없으며, 다만 100% 전라북도 내에서 촬영해야 한다.

시는 응모작 중 총 2편을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와 VR(가상현실) 영상 촬영용 VR카메라(인스타프로2)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



다.

희망자는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jca.or.kr)에서 내려 받은 지원신청서와 제작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메일(st2904@jc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 음향산업팀(063-281-4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의 소리가 담긴 영상 제작이 활성화되고 음향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의회,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 없다" 잇따른 공개사과

음주운전 입건 의원은 기자회견 불참...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깊은 우려와 성숙된 의회상 확립 위한 자숙 계기 삼겠다"

전주시의회가 소속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만에 또 다시 공개사과를 했다.

23일 강동화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선 문제들로 시민의 질타가 많은 상황 속에 지난 7일 발생한 한 시의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성숙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를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과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상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한승진 의원은 이날 사과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7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돼 있는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으며,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 의원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기자



23일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불거진 시의원 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직원 대상 친절·안전교육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성진여객 시작으로 5개사 순회 방문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하 시공위)는 지난 20일 성진여객 운수종사자와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운행, 승객 친절 응대, 마스크 착용 및 회차지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이었다.

시공위는 성진여객을 시작으로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5개사를 순회 방문해 친절·안전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주요 시내버스 회차지 6개소에 친절·안전운행을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수시 방문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대섭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무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운수종사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접수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용자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 사업은 시의 용자지원 추진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잔액을 포함해 총 108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용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운전·창업자금)이며,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용자(이자보전) 기간은 2년(1년 연장 가능)으로,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에는 3%까지,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업체, 우수항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까지 이자가 보전된다.

희망업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에 있는 기업지원사무소(063-281-2945, 2068)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용자금액이 결정된다.

용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에서 2개월 이내에 용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만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최준범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이번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